

여기 긴 세월동안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자신의 주변을 항상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사계 추처럼 정확한 사람,
너무나 따뜻해서 기계마저 감정을 풀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송정섭 차장이다.
그에게 있어서 일하는 과정은
언제나 즐거움이요, 삶의 보람이다.
어느 소설가의 표현을 빌어 그의 모습을
'아름다운 얼굴' 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삼립G·F 생산 1팀장 송정섭

71년 삼립G·F에 입사한 그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경기도 화성군에서 농사 짓고 살던 평범한 농촌총각. 이것이 바로 송정섭 차장의 과거였다.

드넓은 삼립G·F 공장부지. 광활하기 그지없는 공장 뜰을 지나 생산부 건물로 옮기는 발걸음이 힘들다고 느낄 즈음, 누군가가 현관에 나와 미소로써 반기고 있다. 예상대로 그가 바로 송정섭 차장(50). “먼 데서 오느라 힘드셨지요”라며 사무실 안으로 몸소 안내를 한다. 아담한 체구를 한 그의 첫인상은 밝음, 그 자체였다. 깔끔한 사무실 안을 지나 신입사원들의 교육장소로 이끄는 그의 뒷모습이 웬지 모르게 믿음직스럽게 느껴진다.

이야기를 하는 그의 얼굴은 자못 진지하다. 아마도 수많은 사연이 있었던 지난 날을 회상하기 때문이리라. 그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작업복이 어깨에 몸담은 시간을 대변해 주는 느낌을 준다. 25살의 딸과 군대에 간 아들을 둔 그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만큼 힘차고 젊은 톤의 목소리를 가졌다. 대화하는 중간중간 그의 손은 무언가를 자세히 설명하려는 듯 부지런히 움직였다. “전이 직장에서 일하는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의 모

습이 그야말로 ‘정열적’이다.

사랑을 위해 ‘삼립인’ 이 되다

71년 삼립G·F에 입사한 그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경기도 화성군에서 농사 짓고 살던 평범한 농촌총각. 이것이 바로 송정섭 차장의 과거였다.

4남매 중 장남으로 집안의 기대와 책임감을 한 몸에 안고 살던 이 청년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된다. 바로 도시처녀들의 ‘농촌총각과의 결혼기피증’. 그것 때문

에 그는 상경을 결심하고 마침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삼립G·F 사원이 된다. 그에겐 제과업에 대한 흥미나 지식은 전무했다. 오직 한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상경과 입사를 동시에 결심하게 된 것이다.

“71년 당시 7만원 달랑 가지고 상경해서 삼립인이 되었지요 그 때 아내의 힘이 굉장하셨습니다.”

27살의 나이로 생산부에 입사해서 농사짓던 근력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감내하며 지내온 25년의 세월. 입사 동기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선배 사원들과의 사이가 조금 막막했다. 하지만 그의 밝고 긍정적인 사고가 여지없이 발휘돼 곧 사원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제과기술이라거나 기계 다루던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더 늦게 퇴근했다. 그 습관은 차장이 된 오늘날까지 몸에 배어버렸다. 정신적인 고충도 많았고 손에 익지 않았던 제빵기술을 배

우다 이곳저곳 작은 상처도 많다.

“12시간 근무하는 틈틈이 제빵서적도 많이 보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만년만에 반장장, 그 다음 해에는 반장이 됐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다들 눈코 뜰새 없이 바빴죠. 여가를 중요시하는 요즘 사람들과 달랐죠.”

그의 말대로, 요즘 세대들은 자신들의 여가활용을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만큼 삶에 대한 욕심도 다양하고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며 떠돌이새처럼 옮겨 다닌다. 그는 그런 세태를 이렇게 충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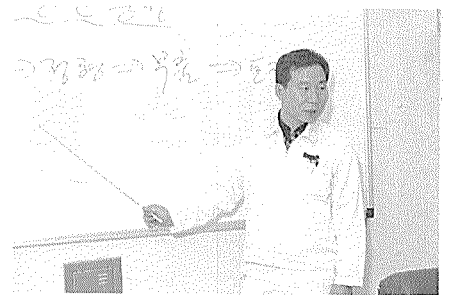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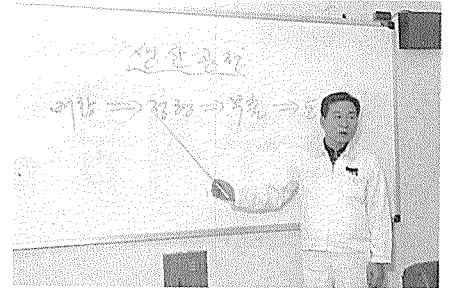
“저는 신입사원 교육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 안에 회사의 사정을 맞추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든 성공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돈과 조건이 더 좋다고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에게는 안정된 미래도,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고 사물을 바라보면 그 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250명의 생산부 사원들을 제 몸같이 여기고 아끼는 송정섭 차장. 그는 가정 생활에 충실한 ‘애처가’ 이기도 하다. 휴일이면 아내와 뜨거운 커피를 타 가지고 간단한 산행을 하고, 술 생각이 나면 가족들과 함께 마신다. 그는 부모, 자식 사이라고 금을 그어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 대 인간으로 자식이나 부하 직원들을 대한다.

이런 그의 생활 자세가 타인들에게 얼핏 비취지기엔 어리둥절해보일 수도 있지만 “남들 시선에 연연해 하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라는 당당함이 그런 시선들을 무색케 한다. 그는 마치 사랑으로 뭉쳐진 사람 같다.

물 흐르듯 자연스레 살아온 인생

나이에 보나 인생경험으로 보나, 그는 확실한 ‘윗사람’이다. 신제품개발팀과 자주 만남을 갖고 제품생산과 개발을 동시에 연구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 신입사원 교육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그의 모습. “생산라인을 설명해보면~”이라는 서투르지만 차분하고 정확한 어투로 강의에 임한다. 누구나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의 강의는 즐겁기만 하다.

그러한 ‘윗사람’의 권위를 찾아볼 수 없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야지요. 그러려면 권위보다는 인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분위기 유도가 이루어져야지요.”

어디까지나 ‘현장중심’이라는 회사 방침 아래 생산부서의 작업은 활기가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다. 이러한 것이 그를 삼립인으로만 묶어두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곳에서 스카웃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지요. 그렇지만, 삼립G·F는 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직장입니다. 퇴임하는 날까지 아니, 회사가 절 원할 때까지 계속 일할 겁니다.”

그는 돈 욕심이 없다.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허상과 같다고 생각한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싫은 소리 안 하는 것을 자신의 생활신조로 삼는 그가 너무나 소박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단정은 금물. 그의 해맑은 미소 뒤에 불타는 정열이 끓고 있다. 그것은 일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식지 않는 불꽃이다. **김기**

(글/권희란)



▲ 부지런한 손 동작이 그의 성격이 활발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듯 하다. 그는 활기있는 20대 청년 못지않다.



▲ 부하직원들은 그를 친형처럼, 친아버지처럼 여긴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즐겁게 웃고 있을까? 그는 확실히 분위기를 부드럽고 자유유롭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